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 해설지 ]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③

출제 의도: 이 문항은 글 (가)와 (나)의 중심 내용 및 서술 방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각 글의 핵심 주제와 정보 제시 순서,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글 전체에 대한 설명을 비교하여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지를 측정한다.

문항 해설:

정답 해설 ③: (나)는 목자의 음악에 대한 효용성 중심의 비판적 견해(비악론)라는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목자 자신의 주장(2문단)과 이후 한(漢)대 유학자(3문단), 양옹(4문단) 등 여러 시대 학자들이 목자의 비악론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했는지 그 다양한 견해와 그 변화 과정을 시간의 흐름(통시적)에 따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가)는 공자의 음악관에 대한 핵심 내용과 그 사회적 기능을 설명하고 있으나, 공자와 목자 음악론이 후대 사상에 미친 위상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거나, 두 사상이 당대 정치에 미친 실제적 영향력을 대비하여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② (가)는 공자가 예악을 통해 지향한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음악의 긍정적 기능을 강조하지만, 음악을 활용하는 방법의 본질적인 한계나 그 극복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④ (나)는 여러 학자들이 목자의 음악론을 해석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해석상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점을 제시하거나 학문적 논쟁을 조정하려는 의도를 보이지는 않는다.

⑤ (가)는 공자의 음악관을 긍정적으로 제시하며, (나)는 목자의 비판적 음악관과 그에 대한 후대의 다양한 해석을 보여준다. (가)와 (나) 모두 당대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음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규범적 기준을 제시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가)에서 그 기준의 '변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 역시 목자에 대한 '해석'의 변천이 중심이므로, 양자를 포괄하는 설명으로 미흡하다.

2. (가)에 제시된 공자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출제 의도: 이 문항은 글 (가)에 서술된 공자의 음악관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시된 진술이 공자의 견해에 부합하는지 혹은 부합하지 않는지를 판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특정 사상가의 주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항 해설:

정답 해설 ①: (가)의 4문단에 따르면, 공자는 "음악의 조화 원

리"를 "다양한 인간사와 사회 현상의 선악(善惡)과 정사(正邪)를 판별하는 객관적 준거"로 보았다. 또한 3문단에서는 음악의 "구체적인 형식이나 연주 방식"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 현상의 선악 판단 기준은 '변화하는 음악의 구체적 양식(외적 형식)'이 아니라 '항구적인 음악의 조화 원리(내적 정신)'이므로, 이 진술은 공자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가)의 4문단에서 공자는 "인간에게 내재된 희로애락(喜怒哀樂)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긍정하며, 이러한 다채로운 감정들을 예(禮)의 정신을 통해 적절히 조절하고 음악의 힘을 빌려 순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의 3문단에서 공자는 "음악이 지닌 근본 원리, 즉 조화와 중용의 가치가 지닌 영속성"을 강조하면서도 "음악의 구체적인 형식이나 연주 방식 자체가 특정 시대의 관습에 얽매어 불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의 2문단에서 "국가의 안정과 번영 및 개인의 덕성 성숙은 정제된 음악의 실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았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의 1문단에서 "음악(樂)을 통한 인격 함양 및 사회 교화"를, 3문단에서 "모든 백성을 감화시켜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핵심 원리"를, 4문단에서 "음악의 힘을 빌려 순화"시키는 기능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④

출제 의도: 이 문항은 글 (나)에 제시된 특정 구절(㉠, ㉡)이 담고 있는 의미와 필자가 이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 및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해당 구절이 포함된 문단 전체의 맥락 속에서 그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항 해설:

정답 해설 ④: ㉠이 포함된 (나)의 3문단에서 한(漢)대 유학자는 목자의 '절용'을 유학의 '검약'과 연결하고 예악의 핵심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목자 사상의 일부를 유학적 가치 체계와 접목하여 유교적 예악 문화의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강화하려 한다. ㉡이 포함된 (나)의 4문단에서 양옹은 주류 유학자들이 목자 사상을 편협하게 이해했다고 비판하며, 목자 비악론의 본래 취지(절박한 문제의식, 백성에 대한 사랑 등)와 그 역사적 맥락을 밝혀 그릇된 평가를 바로잡으려 하므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의 한 유학자는 목자가 "인간의 근원적인 정서적 욕구를 간과했다"고 보았으므로, 목자가 예술 비판 논리의 현대적 한계를 지적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의 양옹은 목자 비악론의 대안을 모색하기보다는 그 본래 의도를 재조명하려 했다.

② ㉠의 한 유학자는 목자 사상의 극단성을 지적하기보다는 유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려 했으며, ㉡의 양웅은 목자 비판의 의의를 축소하기보다 그 정당성을 밝히려 했다.

③ ㉠의 한 유학자가 목자 사상을 유학의 보조 이론으로 편입시키려 했다거나, ㉡의 양웅이 목자 주장을 다른 사상 조류와 비교하여 철학사적 독창성을 규명하려 했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을 벗어난 해석이다.

⑤ ㉠의 한 유학자가 목자의 실용주의를 새로운 철학적 패러다임으로 제시하려 했다는 것은 과장된 해석이며, ㉡의 양웅은 목자 비약론에 대한 반론들을 종합하여 가치를 재정립하기보다는 목자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고 재해석했다.

4. (나)의 목자와 한(漢)대의 한 유학자의 입장에서 다음의 ㉠~㉢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출제 의도: 이 문항은 글 (나)에 제시된 목자와 한(漢)대 한 유학자의 서로 다른 관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어진 각 진술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올바르게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두 인물의 핵심 주장을 비교하며 각 진술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문항 해설:

정답 해설 ㉡:

목자는 ㉠(백성의 기본적 생존 조건 확보는 국가 최우선 과제이며, 이는 모든 문화적 논의보다 분명 앞선다)에 대해 (나)의 2문단에서 "백성들의 기초적인 생계 문제가 해결되고 사회 전반이 안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극히 소박한 형태의 음악을 논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동의할 것이다. 또한 ㉢(사회 운영 규범은 시대 변화상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효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 검토와 개정이 필요하다)에 대해서도, 목자는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 음악 금지와 같은 적극적 조치를 주장했고 그의 사상 전반이 실용과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므로 동의할 것이다.

한(漢)대의 한 유학자는 ㉠(음악은 창출하는 정신적 가치와 무관하게, 오직 물질적 생산 기여도에 따라 그 필요성이 결정된다)에 대해 (나)의 3문단에서 "인간다운 삶을 구성하는 문화적·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목자를 평가하며 음악의 교화 기능을 인정하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사회 안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우 외에는, 국가는 개인의 다양한 정서 표현 활동에 개입해선 안 된다)에 대해서도, 그는 음악 활동 자체를 일률적으로 부정하기보다 "사회 교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음악과 그렇지 못한 음악을 엄격히 구분하여 선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국가의 불개입보다는 선별적 개입 및 활용을 주장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목자는 ㉠에 동의할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목자는 ㉡에 대해, 특히 사치스러운 음악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금지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④ 한(漢)대의 한 유학자는 ㉠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목자

는 ㉠에 동의할 것이다.

⑤ 한(漢)대의 한 유학자는 ㉢에 동의할 것이다. 목자는 ㉠에 동의할 것이다

5. <보기>를 참고할 때, (가), (나)의 사상가에 대한 현대 경제학자 '노벨'의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출제 의도: 이 문항은 <보기>에 제시된 새로운 관점(현대 경제학자 '노벨'의 관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글 (가)와 (나)에 등장하는 여러 사상가들의 견해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보기>의 핵심 주장과 글의 내용을 연결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적절하지 않은' 평가를 찾는 것이므로, <보기> 관점에서 벗어나거나 논리적 비약이 있는 진술을 판별해야 한다.

문항 해설:

정답 해설 ㉤: <보기>에서 노벨은 "사상 본연의 논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중시하므로, 양웅이 목자 비약론의 역사적 의의를 편견으로부터 구출해 부각한 학문적 기여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노벨이 양웅의 해석이 "현대 예술 지원 정책에 주는 직접적 시사점은 매우 제한적이라 단언할 것이다"라고 평가할 것이라는 진술은 <보기>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 노벨은 특정 예술의 공공 이익 기여도를 따지지만, 특정 해석의 현대적 시사점의 '정도'를 단언하는 기준은 <보기>에 제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목자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자원 배분, 효용성)는 양웅의 해석을 통해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노벨이 이처럼 극히 제한적이라고 '단언'할 것이라는 평가는 <보기>의 관점에서 볼 때 자의적인 판단이거나 논리적 비약일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노벨은 '기회비용'과 '효율성'을 중시하므로, 공자의 음악 효용론에 대해 자원 배분 문제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요구할 것이라는 평가는 적절하다.

② 노벨은 '효용성'과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므로, 목자의 사치 음악 금지 요구를 당시 상황에서 생산력 증대를 위한 합리적 대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③ 노벨은 '원전의 본래 맥락 존중'과 '시대착오적 해석 비판'을 강조하므로, 한 유학자가 목자 주장을 자신의 체계에 맞춰 재구성한 것에 대해 원저자 의도 왜곡 가능성을 지적할 것이라는 평가는 적절하다.

④ 노벨은 '국가 지원 신중론'과 '공공 이익 기여도'를 중시하므로, 양웅의 해석이 특정 음악 가치를 옹호하는 결과로 이어질 경우 그 공공 기여도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요구할 것이라는 평가는 적절하다.

평가원 스타일 해설지 - 격물치지 (최종본)]

6.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①

출제 의도: 글 (가)와 (나)의 핵심 내용과 서술 초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각 글의 특징을 가장 적절하게 요약한 설명을 선택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문항 해설:

정답 해설 ①: (가)는 주희의 격물치지론을 설명하며, 그것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수양 방법론'(1문단), '도덕적 실천의 근간'(1문단), '기질적 한계 극복'(2문단), '도덕적 수양의 과정'(3문단), '윤리적 주체로서 자기 완성'(4문단) 등 수양론적 지향을 지니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나)는 최한기가 제시한 격물론의 방법론적 특징(경험, 실증, 관찰, 측정, 도구 활용 등 - 2문단)과 그에 대한 당대 주자학자의 비판(㉠, 3문단) 및 후대 학자의 긍정적 평가(㉡, 4문단)라는 상이한 평가를 핵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가)는 격물치지의 배경으로 『대학』을 언급하나 그 '역사적 연원'을 상세히 밝히는 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다. (나)는 최한기 개인의 이론과 그에 대한 평가에 집중하며, 그것이 근대 조선 사회 전체에 '수용되어 변모하는 양상'을 상세히 추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가)는 주희가 제시한 격물의 점진적 심화 단계와 궁극적 목표를 기술하고 있으나, (나)가 최한기 이론에 대한 '시대별 수용 양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특정 시기(당대, 후대)의 특정 인물(㉠, ㉡)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④ (가)는 격물치지를 통해 도달하는 궁극적 경지(성인, 도덕적 주체 완성)를 제시하지만, (나)의 최한기는 실용적 지혜와 현실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두 글이 다양한 수단들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⑤ (가)는 주희 격물치지론의 의의를 설명하며 이론적 한계를 분석하지는 않는다. (나)는 최한기 이론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지만, 최한기 스스로가 전통 사상과의 계승 및 단절의 양면성을 심층 분석하는 것은 아니다.

7. (가)에 제시된 주희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출제 의도: 글 (가)에 기술된 주희의 격물치지론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시된 진술 중 주희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식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문항 해설:

정답 해설 ④: (가)의 3문단에서 주희는 격물의 방법으로 "사물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과 더불어, 경전 독서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성찰, 그리고 내면적 사유를 통한 이치의 궁구를 강조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활연관통의 경지가 '오직' 외부 사물에 대한 경험적 관찰과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내면 성찰이 부차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주희가 내면적 사유와 경전 학습 등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중시한 입장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의 2문단에서 "인간의 본성(性) 자체는 순수한 이와 동일하지만(性即理), 현실에서는 유형의 기(氣)로 이루어진 신체와 그로 인한 기질(氣質)의 영향으로 이의 온전한 발현이 방해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희는 부단한 격물을 통해 이러한 기질적 한계를 정화하고 본성이 지닌 본래의 앎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2문단과 3문단을 종합하면, 격물은 개별 사물에 내재한 보편 이치를 점진적으로 탐구하여 활연관통에 이르고, 이는 수양 과정의 일부이므로 적절하다.

③ (가)의 4문단에서 치지를 통해 "윤리적 주체로서 자기를 완성하고 나아가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실천적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의 3문단에서 "경전 학습 및 역사적 사건에 대한 고찰"과 "내면적 사유를 통한 이치의 궁구"를 격물의 방법으로 강조했다, 이것이 "지적 탐구와 경건한 마음 자세(居敬)를 견지하는 수양의 통합적 실천을 요구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8.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①

출제 의도: 글 (나)에 제시된 ㉠(당대의 한 주자학 계승자)과 ㉡(후대의 한 근대 학문 연구자)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입장이 최한기의 사상을 어떤 핵심 논점에서 평가하고 있는지 그 차이를 비교하여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문항 해설:

정답 해설 ①: ㉠은 (나)의 3문단에서 최한기가 "선험적으로 주어진 이(理)의 우위성을 부정하고 모든 현상을 경험 가능한 기(氣)의 작용으로만 환원하려는 시도"가 "성현이 확립한 우주론적 질서와 인간 본성에 대한 심오한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는 최한기가 이(理)보다 경험적 기(氣)를 절대시하여 전통 철학의 근본 원리를 훼손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은 (나)의 4문단에서 최한기의 "경험 중시와 실증적 탐구 정신"이 "당시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사변에 치우친 폐단을 극복"하고 "객관적 지식과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학문 풍토를 조성"했으며, 이는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사유 능력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려는 근대적 학문 태도의 중요한 표본"이라고 평가한다. 이는 최한기의 경험론이 성리학적 사유의 관념적 한계를 넘어 실사구시 정신을 구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은 최한기 방법론의 '현실적 유용성'을 '일시적 편의' 정도로 낮게 평가하며 도덕적 본성 탐구의 문제를 더 중시한다. ㉡은 최한기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가 서구 학문의 '무분별한 추종'으로 전통 학문의 '고유한 정체성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③ ㉠은 최한기가 성현의 가르침을 부정한다고 보지만, 그가 '독자적 이론 체계를 수립하여 당대의 건전한 학문 풍토를 교란한다'는 표현은 ㉠의 비판 논지를 다소 과장하거나 초점을 벗어난 측면이 있다. ㉡의 경우, 최한기의 방법론이 전통 사상의 합리적 계승과 근대적 발전에 기여했다고 분석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에 대한 설명이 ①에 비해 정교함이 떨어진다.

④ ㉠은 최한기의 방법이 내면 수양을 경시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최한기의 주체적 지식 탐구를 '봉건적 사유의 답습에서 벗어나는 지적 동력'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나)4문단의 "전통적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와 연결될 수 있으나, ㉠에 대한 설명과 종합적으로 볼 때 ㉠만큼 각 입장의 핵심을 정확히 짚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은 최한기의 경험론이 지닌 단편적 지식 습득의 한계를 지적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은 최한기를 '전통과의 의식적 단절'이 아니라 '유학의 본래적 관심사인 경세치용(經世致用)의 정신을 시대적 과제에 맞게 창조적으로 재해석한 노력'으로 본다.

9. (나)의 최한기와 정통 주자학자(㉠)의 입장에서 다음의 ㄱ~ㄴ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출제 의도: 글 (나)에 기술된 최한기와 정통 주자학자(㉠)의 핵심 주장을 바탕으로, 주어진 각 진술(ㄱ~ㄴ)에 대한 그들의 동의 여부를 정확히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두 인물의 인식론적, 가치론적 입장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문항 해설:

정답 해설 ㉡:

최한기는 ㄴ(경험적 관찰/실증은 보편 진리 파악의 확실하고 우선적인 방법)에 대해 (나)의 2문단에서 "객관적 관찰, 반복 가능한 실험, 그리고 정밀한 측정 도구의 활용 등을 통해 사물의 운행 이치인 '운화(運化)의 리(理)'를 실증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므로 동의할 것이다.

정통 주자학자(㉠)는 ㄱ(지식 탐구의 궁극 목표는 외부 세계 이해보다 내면의 도덕적 이치 깨달음)에 대해 (나)의 3문단에서 최한기가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보편적 도덕 원리(義理)의 탐구를 등한시"하고 "인간의 도덕적 완성이라는 학문의 궁극적 목표에는 도달할 수 없다"고 비판한 점에서 동의할 것이다. 또한 ㄴ(성현 말씀/경전 권위는 절대적 기준)에 대해서도, 그가 최한기의 이론이 "성현이 확립한 우주론적 질서와 인간 본성에 대한 심오한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우려한 점에서 동의할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최한기는 ㄱ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정통 주자학자는 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③ 최한기는 ㄴ과 ㄴ(감각 지식 불완전, 이성 사유만 참된 앎) 모두에 대해, 경험과 추리를 통한 검증된 지식을 강조했으므로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ㄴ의 경우 '이성적 사유' 자체를 부정하진 않지만 '감각 지식 불완전'을 근거로 '오직 이성적 사유만'이라는 부분은 그의 경험 중시와 배치된다.

④ 정통 주자학자는 ㄴ에 대해, 이성적 사유를 중시하지만 감각 경험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성만으로 참된 앎이 가능하다고 보았는지는 지문에서 명확하지 않으며, 주자학은 격물에서 사물 관찰도 포함한다. 최한기는 ㄴ에 동의하고 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⑤ 정통 주자학자는 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최한기는 ㄴ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10. <보기>를 참고할 때, (가), (나)의 사상가에 대한 현대 철학자 '오윤석'의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출제 의도: <보기>에 제시된 현대 철학자 '오윤석'의 인식론적 관점('논리적 정합성'과 '경험적 확정성'의 조화, 역사적 맥락 고려와 현대적 기준에서의 합리성 검토, 지식 가치의 다면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가)의 주희와 (나)의 최한기 및 관련 인물들의 사상에 적용하여 타당한 평가와 그렇지 않은 평가를 구분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적절하지 않은' 평가를 고르는 문제이므로, <보기> 관점에서 벗어나거나 논리적 비약 또는 왜곡이 있는 진술을 판별해야 한다.

문항 해설:

정답 해설 ㉡: <보기>에서 오윤석은 "이성과 경험이 서로를 비판하고 보완하는 가운데 지식은 점진적으로 발전한다"고 보았다. 주희의 '활연관통'은 직관적 성격이 강하며, 최한기의 '징험'은 객관적 검증을 추구한다. 이 둘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경험적 확정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였다고 부분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으나, 이것이 오윤석이 말하는 이성과 경험의 '상호 보완'을 통해 지식의 점진적 발전을 이루려는 시도와 동일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보기>의 논지를 벗어난 평가이다. 특히 주희의 경우 선험적 이성을, 최한기는 경험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므로, 이 둘의 방법론이 오윤석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의 이상적인 예시로서 '양립 불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자의 방식으로 지식 발전에 기여하려 했으나 오윤석의 기준에서 보면 어느 한쪽에 치우쳤을 수 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을 <보기>의 '상호 보완'의 완벽한 사례로 단정하거나, 이들이 인식론적 기준의 '양립 불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단정하는 것은 오윤석의 관점에서 내리기 어려운 평가이다.

오답 해설:

① 오윤석은 '경험적 확정성'과 '논리적 정합성'의 조화를 중시하므로, 주희가 '이'라는 선험적 원리에 기반한 '논리적 정합성'을 추구했을 수 있으나, '경험적 관찰의 증거'를 보편 원리에 종속시킬 경우 '경험적 확정성' 확보에는 미흡하여 독단론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는 평가는 <보기>의 관점에 부합한다.

② 오윤석은 '경험적 관찰'과 '선험적 이성의 보편 원리' 탐구의 조화를 중시하므로, 최한기의 '경험적 관찰' 강조는 긍정하되, '선험적 이성의 보편 원리' 탐구를 소홀히 한다면 회의론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보기>의 관점에 부합한다.

③ 오윤석은 '경험적 확정성'을 중시하므로, 정통 주자학자(㉠)가 최한기를 비판하며 인간의 자기 이해(도덕적 가치)를 강조한 것은 긍정적일 수 있으나, 경험적 탐구의 중요성을 간과한 점은 지식 발전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보는 것은 <보기>의 관점에 부합한다.

④ 오윤석은 '역사적 맥락 고려'와 '현대적 기준에서의 합리성 검토'를 모두 중시하므로, 후대 학자(㉡)의 역사적 맥락 평가는 인정하되, 최한기 지식론이 지닌 '이론적 설명의 포괄성'(보편 원리 설명)에 대해서는 현대적 기준의 엄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보기>의 관점에 부합한다.

평가원 스타일 해설지 - 심리철학의 물리주의적 이론들 (최종 분)]

1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①

출제 의도: 글 (가)와 (나)의 전체적인 내용 구조와 핵심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 글이 다루는 주요 이론들의 관계 및 논의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특히 각 글의 전개 방식을 문단별 핵심 내용과 연결하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항 해설:

정답 해설 ①: (가)는 물리주의의 등장 배경(1문단)을 설명한 후, 초기 물리주의 이론인 행동주의(2문단)와 심신 동일론(3문단)의 핵심 주장 및 각각이 직면한 주요 난점(감각질, 다중 실현 가능성 등)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한계가 후속 이론의 필요성을 야기했음(4문단)을 명확히 보여준다. (나)는 이러한 초기 이론들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기능주의의 핵심 주장과 강점(1, 2문단)을 설명하고, 기능주의 역시 감각질이나 지향성 문제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음(3문단)을 밝힌 후, 이에 따라 물리주의 진영 내에서 비환원적 물리주의와 제거적 유물론과 같은 다양한 후속 이론들이 등장하며 논쟁이 심화되는 과정(4문단)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나)는 기능주의 이후 등장한 이론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설명하려 하며 여전히 논쟁 중임을 보여줄 뿐, 마음의 본질에 대해 '합의된 설명'을 도출했음을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가)는 초기 이론들을 옹호하기보다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그 한계를 지적한다.

③ (가)는 행동주의와 동일론을 설명하지만, '심적 상태의 내면성이 어떻게 배제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지는 않는다. (나)는 기능주의가 감각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지만, 이것이 (나) 전체의 핵심 분석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가)는 초기 이론들이 이원론의 상호작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포함하지만, 모든 이론이 이를 주요 목표로 삼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음을 집중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의 후속 이론들은 여전히 논쟁 중이며 통일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

⑤ (가)와 (나) 모두 각 이론의 한계를 언급하지만, 그것이 과학적 세계관과 양립 가능한 마음 설명을 제공하는 데 '성공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그 이론적 의의를 평가하는 것이 주된 서술 방식은 아니다. 또한 (나)는 인공지능 연구와의 연관성을 언급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 제시'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

12.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⑤

출제 의도: 글 (가)에 제시된 초기 물리주의 이론들(행동주의, 유형 동일론)의 핵심 내용, 주장, 한계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진술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특히, 지문의 여러 부분에 걸쳐 서술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미묘한 표현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문항 해설:

정답 해설 ⑤: (가)의 2문단에서 행동주의는 마음의 인과적 역할을 행동 성향으로 설명하려 했고, 3문단에서 동일론은 마음의 인과적 역할을 뇌의 인과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한다고 언급한다. 따라서 초기 물리주의 이론들이 '공통적으로 마음의 인과적 역할을 물리적 과정으로 설명하는 데 실패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를 설명하려 시도했으나, 다른 문제점들(예: 감각질, 다중 실현 가능성)에 직면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2문단은 행동주의가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분석하여 이원론의 상호작용 문제를 회피하려 했으나, 동일 행동 이면의 상이한 마음이나 감각질 설명에는 한계를 보여 후속 이론의 등장을 야기했다고 서술한다. 이는 지문 4문단의 내용과도 연결된다.

② (가)의 3문단은 유형 동일론이 마음을 특정 뇌 상태와 동일시하여 물리주의적 설명을 구체화했지만, 다중 실현 가능성이란 반론에 직면하여 그 보편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음을 설명하며, 이는 4문단에서 후속 이론 등장의 배경으로 이어진다.

③ (가)의 1문단은 물리주의가 정신 현상을 포함한 모든 것이 물리적인 것이거나 그에 의존한다고 보아, 마음을 비물리적 실체로 보는 관점(예: 이원론)과 대립하며 과학적 세계관에 부합하는 마음 이해를 추구했음을 보여주고, 이는 2문단의 행동주의 설명과 연결된다.

④ (가)의 3문단 말미와 4문단은 다중 실현 가능성 논변이 심적 상태의 본질을 물리적 구성이 아닌 기능적 역할에서 찾아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며 동일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후속 이론의 등장을 촉발했음을 명확히 한다.

1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④

출제 의도: (나)의 4문단에 제시된 ㉠(한 비환원론자의 입장)과 ㉡(한 제거론자의 주장)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 두 입장이 기능주의의 한계((나)의 3문단)라는 공통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지만 어떻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는지 그 차이점을 비교하며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지문 전체의 흐름 속에서 각 입장의 위치와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문항 해설:

정답 해설 ④: ㉠과 ㉡은 모두 (나)의 3문단에서 제시된 기능주의의 난제(감각질, 지향성 문제 등)에 대한 물리주의 진영 내의 새로운 이론적 모색으로 볼 수 있다. ㉠은 "심적 속성은 물리적 속성과 존재론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지만"이라고 하여 심적 속성의 실재와 독자성, 즉 마음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반면, ㉡은 "믿음, 소망, 의도와 같은 개념들이 근본적으로 오류투성이인 원시적 이론이며...폐기될 운명이라고 주장"하여 심적 용어와 그것이 지칭하는 대상의 근본적 오류를 지적하며 그 실재성을 부정한다. 이는 물리주의 내에서 상이한 이론적 경로를 모색하는 것임을 보여주므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은 기능주의가 직면한 감각질 문제에 대한 직접적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보기 어렵고, ㉡은 민간 심리학 개념들이 기능주의가 설명하려는 인과적 역할조차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고 보기보다는, 그 인과적 역할의 기반이 되는 민간 심리학적 개념 자체가 허구라고 본다.
- ② ㉠은 심적 상태가 물리적 상태와 다른 층위에 존재함을 인정하나 그 결정 관계(수반)를 주장하지만, ㉡은 행동주의가 간과한 내적 경험의 실체를 옹호하기보다 그 내적 경험을 기술하는 용어 자체를 부정한다.
- ③ ㉠은 수반 관계를 통해 물리적 상태와 심적 상태 간의 특정 관계를 설정하므로 '일대일 대응 부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은 민간 심리학의 '설명적 유용성'을 인정하기보다 그 근본적 오류를 지적한다.
- ⑤ ㉠은 심적 인과를 물리적 인과와 양립시키려는 시도이지만, ㉡은 기능주의가 설명하는 마음의 정보 처리 과정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 상태에 기반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보다는, 그 정보 처리 과정을 기술하는 '용어'들이 폐기될 것이라고 본다.

14. (나)의 기능주의와 제거적 유물론의 입장에서 다음의 ㄱ~ㄴ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출제 의도: (나)에 제시된 기능주의와 제거적 유물론의 핵심 주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어진 각 진술(ㄱ~ㄴ)에 대한 각 이론의 동의 여부를 추론하여 올바른 조합을 찾는 능력을 평가한다. 각 이론의 핵심 전제와 함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항 해설:

정답 해설 ㉡:

기능주의: ㄱ(마음의 본질은 기능)은 (나)의 1문단에서 제시된 기능주의의 핵심 주장에 부합하므로 동의할 것이다. ㄴ(동일 기능-동일 심적 상태를 가질 때 주관적 의식 경험도 동일해야 하는가)은 (나)의 3문단에서 기능주의가 감각질 문제에 직면했음을 고려할 때, 기능주의는 기능적 동일성이 반드시 주관적 경험의 동일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이 진술을 기능주의의 입장에서 '난점'으로 인식할 것이다. 즉, 이 진술이 참이라면 기능주의에 문제가 된다. 따라서 기능주의는 ㄴ을 '자신의 이론이 해결해야 할 과제' 또는 '자신의 이론에 대한 비판 지점'으로 인식할 것이다. (선택지 표현상, 'ㄴ을 난점으로 인식하며'는 기능주의가 ㄴ의 내용을 자신의 이론에 대한 도전 과제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제거적 유물론: ㄴ(일상적 심적 용어는 실재하는 마음 상태 지칭)은 (나)의 4문단에서 제거적 유물론이 민간 심리학의 개념들을 "근본적으로 오류투성이인 원시적 이론"으로 보며 "폐기될 운명"이라고 주장한 것에 비추어 명백히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ㄷ(신경과학 발전이 현재 마음 개념 틀 대체)은 제거적 유물론의 핵심 예측이므로 동의할 것이다.

따라서 기능주의는 ㄱ에 동의하고 ㄴ을 난점으로 인식하며 (즉, ㄴ과 같은 상황이 기능주의에 도전이 됨을 인정하며), 제

거적 유물론은 ㄴ에 동의하지 않고 ㄷ에 동의한다는 조합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기능주의는 ㄴ에 대해, 민간 심리학적 용어가 지칭하는 기능적 역할의 실재는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이 '정확히' 실재하는 내적 상태를 지칭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제거적 유물론만큼 강하게 부정하지는 않음)
- ③ 기능주의는 ㄴ과 같은 상황을 자신의 이론에 대한 주요 비판(감각질 문제)으로 받아들이므로, 이 진술 자체의 내용(기능만으로 마음 설명 한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기보다는, 이 진술이 지적하는 바를 '난점'으로 인식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 ④ 제거적 유물론은 ㄴ에서 언급된 '주관적 의식 경험'이나 '감각질'과 같은 용어 자체도 민간 심리학적 오류로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기능주의가 ㄴ을 '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ㄴ이 제기하는 문제를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려 노력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⑤ 제거적 유물론은 ㄱ에서 언급된 '마음 상태'나 '인과적 역할'이라는 개념 자체도 민간 심리학에 오염된 것으로 보아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기능주의가 ㄴ을 핵심적인 반론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중요한 '난제'로 인식한다.

15. <보기>를 참고할 때, (가)와 (나)에 제시된 이론들에 대한 '임세진'의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출제 의도: <보기>에 제시된 철학자 '임세진'의 '이론의 발전성 평가 기준'(문제 해결 능력, 예측의 풍부성, 이론적 정합성, 퇴행적 전환의 부재)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가)와 (나)의 물리주의 이론들의 특징 및 전개 과정에 적용하여 각 이론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이론 간 전환의 성격을 <보기>의 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평가한 진술을 선택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여러 기준을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지문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정답을 고를 수 있다.

문항 해설:

정답 해설 ㉢: 임세진의 기준에 따르면, 기능주의((나)의 1,2문단)가 유형 동일론의 난제였던 다중 실현 가능성 문제를 해결한 것은 중요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며, 인지과학 및 인공지능 연구를 촉발하여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한 점은 '예측의 풍부성'에 해당하여 높이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3문단에서 지적되듯이 기능주의가 감각질 문제나 지향성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지 못하고 다양한 분파를 형성하며 논의를 이어간 것은, 이론 내부의 완결성이나 통일된 설명력 측면에서 '이론적 정합성'이 약화된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임세진은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선지는 <보기>의 여러 기준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기능주의의 강점과 잠재적 약점을 균형 있게 평가하고 있으므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행동주의((가)의 2문단)가 이원론의 상호작용 문제를 회피하려 한 점은 '문제 해결 시도'로 볼 수 있으나, 감각질 등 핵심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 것은 '문제 해결 능력 부족'이며, 이것이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여 '퇴행적 전환'의 모습을 보였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초기 이론으로서의 한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퇴행적 전환'은 반박 사례에 대한 이론의 대응 방식과 관련된다.

② 유형 동일론((가)의 3문단)이 다중 실현 가능성이란 반박에 직면했을 때, 이론 자체가 기능주의와 같은 새로운 이론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겪었으므로, 이를 단순히 유형 동일론 내부의 '퇴행적 전환'(핵심 고수하며 부수적 가설 추가)으로만 규정하기는 어렵다. 기능주의로의 이행은 새로운 문제 해결 시도로 볼 수 있다.

④ 비환원적 물리주의((나)의 4문단)가 심적 속성의 독자성을 주장한 것이 기존 물리주의의 설명 범위('문제 해결 능력')를 넓히려는 시도일 수 있으나, 수반 관계의 불명확성이 반드시 '이론적 정합성'을 해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새로운 예측을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는 지문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

⑤ 제거적 유물론((나)의 4문단)이 민간 심리학의 오류를 지적하며 신경과학 기반의 새로운 탐구를 제안하는 것은 '예측의 풍부성'으로 볼 수 있으나, 기존 심리학적 지식과의 심각한 불일치(이론적 정합성 부족)와 설명해야 할 현상 자체를 부정하는 점을 들어 임세진이 반드시 '문제 해결 능력이 낮다'고만 평가할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보기>는 기준들의 '종합적 만족도'를 중시하므로, 특정 기준에서의 약점이 다른 기준에서의 강점으로 상쇄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평가원 스타일 해설지 - 플로리다 정보철학 (최종본)]

16.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③

출제 의도: 글 (가)와 (나)의 중심 내용과 논지 전개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 글의 핵심 주제와 구조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가장 적절하게 요약한 설명을 선택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두 글 간의 관계 및 각 글의 핵심 논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항 해설:

정답 해설 ③: (가)는 플로리다 정보철학의 핵심 개념인 데이터, 정보, 지식의 관계를 설명하며, 특히 2문단에서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거쳐 지식으로 나아가는 이 일련의 과정을 정보 처리의 핵심 단계"로 규정하여 정보의 단계적 발전을 제시한다. (나)는 이러한 플로리다의 정보 정의, 특히 "의미 정보는 ... 반드시 '참'이어야 한다는 진리조건"(1문단)을 중심으로 하는 위계적 정보관이, "현실의 정보 생태계는 이러한 규범적 모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성을 지닌다"(2문단)고 지적하며, 거짓 정보나 오정보의 현실적 영향력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2문단), 그리고 탈진실적 서사 등의 문제(3문단)를 언급하며 그 한계를 논하고 있으므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나)는 (가)에서 정립된 핵심 개념에 대한 '심층적 비판'을 제시하는 것은 맞지만, (가)가 정보철학의 방법론과 핵심 개념

의 '정립 과정' 자체를 역사적으로 추적하거나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상세히 다루고 있지는 않다. (가)는 정립된 내용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둔다.

② (가)는 정보의 객관적 기준(진실성)을 확립하지만, (나)가 정보 가치의 '상대성'을 주장하며 (가)와 '대립하는 대안적 관점'을 제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는 (가)의 엄격한 기준이 현실을 포괄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보완의 필요성을 논하는 것에 가깝다.

④ (가)는 플로리다 이론의 인식론적 기초를 설명하지만, (나)가 그의 이론을 바탕으로 정보 윤리의 '구체적 실천 원리 도출 및 타당성 검증'까지 나아간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는 주로 이론적 비판과 보완 방향을 제시하며, 정보 윤리 언급은 말미에 아쉬움으로 간략히 나타난다.

⑤ (가)와 (나) 모두 정보철학을 다루지만, 새로운 학문 분야의 '역사적 필연성'을 역설하거나 그것이 '기존 철학의 주요 난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논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플로리다 정보철학 자체의 내용을 설명하고 검토하는 데 집중한다.

17. (가)에서 알 수 있는 플로리다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출제 의도: 글 (가)에 기술된 플로리다의 정보철학 핵심 개념과 주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시된 진술 중 그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식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지문의 여러 문단에 걸쳐 제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연결하고, 미묘한 표현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문항 해설:

정답 해설 ②: (가)의 2문단에서 플로리다는 데이터, 정보, 지식을 "뚜렷이 구분되면서도 연속선상에 놓인 개념들"로 보고, 데이터에서 정보, 정보에서 지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정보 처리의 핵심 단계"로 보아 위계적인 관계를 설정한다. 그러나 각 단계가 반드시 '인식론적 가치의 위계를 이루며 연속적으로 발전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문의 표현보다 더 강한 주장이다. 지문은 각 단계가 '상당한 추상화 수준에서 분석될 수 있다'고 할 뿐, 그 발전이 항상 연속적이거나 가치 위계가 절대적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는다. 특히, 정보와 지식 간의 발전은 명확하지만, 데이터에서 의미 정보로의 전환은 '진실성'이라는 엄격한 조건을 통과해야 하므로 단순한 연속적 발전이라기보다는 질적 변화를 수반한다. 따라서 이 선지는 플로리다의 생각을 정밀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오답 해설:

① (가)의 1문단에서 플로리다의 정보철학이 인포스피어와 인포그를 탐구하며, 추상화 수준을 핵심 방법론으로 활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③ (가)의 2문단과 3문단에서 의미 정보는 진실성을 핵심 요건으로 하며 객관적 세계에 대한 참된 기술로서 지식 형성의 토대가 된다고 설명되어 있다.

④ (가)의 1문단에서 추상화 수준은 "존재론적 계층이 아니라 분석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는 관점의 틀"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⑤ (가)의 3문단에서 제4차 혁명은 인간의 정보적 존재자로서

의 변화에 대한 통찰이며, 정보의 진실성과 지식의 체계성은 윤리적 행동의 전제 조건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18. (가)에 따라 ‘데이터, 정보, 지식’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⑤

출제 의도: 글 (가)에서 설명된 플로리다의 데이터, 정보, 지식 개념의 정의와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올바르게 적용하여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각 개념의 핵심 특징, 특히 정보의 ‘진실성’ 요건과 지식의 ‘정당화된 참된 믿음’ 또는 ‘설명력’이라는 측면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항 해설:

정답 해설 ⑤: (가)의 2문단과 3문단에 따르면, ‘정보’는 진실성을 핵심 요건으로 하며, ‘지식’은 참된 정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정당화되어 설명력을 갖는 상태이다. 친구의 한마디 말의 음성 패턴(데이터)에서 그의 숨겨진 불만(해석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정보가 되려면 그 해석이 ‘참’이어야 한다. 그런데 선지는 이러한 해석적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의 평소 성향을 추론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하고 있다. 플로리다에게 지식은 ‘참된 정보’에 기반하므로, 참이 아닌 정보(또는 데이터 수준의 해석)에 기반한 성향 추론은 플로리다가 말하는 엄밀한 의미의 지식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환자의 개별 생체 측정치(데이터)를 종합 분석하고 의학적 원리(기존 지식)를 적용하여 질병의 발병 기제와 진행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고도의 설명력을 갖춘 지식 구성에 해당한다. (데이터 → 지식)

② 미확인 루머(데이터)가 교차 검증을 통해 사실로 확정되어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면 정보가 될 수 있다. (데이터 → 정보)

③ 강수량 관측 기록(데이터) 기반의 날씨 예보(정보), 그리고 누적된 정보와 모델을 통해 기후 변화 추세를 도출하는 것(지식)은 각 개념의 위계적 관계를 잘 보여준다. (데이터 → 정보 → 지식)

④ 재무제표 원본(데이터)에서 추출한 핵심 사실 요약 보고(정보), 이를 토대로 차기 투자 전략 수립(지식 기반 의사결정)은 적절한 적용이다. (데이터 → 정보 → 지식 활용)

19.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가)의 ㉠과 ㉡에 대한 플로리다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출제 의도: 글 (나)에 나타난 글쓴이의 비판적 관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에 제시된 플로리다 이론의 핵심 요소(㉠추상화 수준, ㉡데이터-정보-지식 단계)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나) 글쓴이의 핵심 논지를 파악하고, 이를 ㉠과 ㉡에 적용했을 때 도출될 수 없는 분석을 찾아야 한다.

문항 해설:

정답 해설 ①: (나)의 글쓴이는 플로리다의 ‘진리 중심적 정보

관’(㉠과 밀접하게 관련된)이 현실의 비진리적 정보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 ㉠(추상화 수준)은 정보 현상 분석의 ‘방법론적 틀’이다. 글쓴이가 ㉠ 자체의 유연성을 부정하거나, 이 방법론이 ㉡의 진리 중심적 정보관과 결합될 때 ‘반드시’ 현실 분석에 제약이 따른다고 직접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다. 글쓴이의 비판은 ㉡의 ‘내용적 엄격성’에 대한 것이지, ㉠이라는 방법론이 ㉡과 결합함으로써 그 자체의 유효성이 손상된다는 논리는 아니다. 오히려 ㉠을 통해 다양한 정보 현상을 분석해야 하는데 ㉡의 제약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는 뉘앙스에 가깝다. 따라서 ㉠이 ㉡과 결합 시 ‘한계를 드러낸다’고 ㉠ 자체를 평가하는 것은 글쓴이의 분석과 거리가 있다.

오답 해설:

② (나)의 2문단에서 글쓴이는 ‘거짓 정보’나 ‘오정보’가 진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함에도 현실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에서 정보의 진실성을 핵심 요건으로 삼는 플로리다의 입장은 이러한 현실의 작동 기제 해명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③ (나)의 3문단에서 글쓴이는 ‘유사 정보’ 또는 ‘기능적 정보’ 범주를 추가하거나 데이터-정보 관계를 유연하게 설정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을 통해 분석된 ㉡의 과정이 지나치게 규범적이고 진리만을 강조할 경우 다양한 정보 현상을 간과할 것이라는 우려와 연결된다.

④ (나)의 3문단에서 글쓴이는 현실의 인포스피어가 ‘탈진실적 서사’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는 ㉡의 단계가 객관적 진리만을 정보로 인정하고 그 외 현상을 배제할 경우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⑤ (나)의 3문단 말미에서 글쓴이는 플로리다의 정보철학 체계 내에서 비진리적 정보의 해악과 통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아쉬움을 표한다. 이는 ㉠과 ㉡에 기반한 이론이 이러한 구체적인 사회 시스템 구축 방안까지는 제시하지 못한다는 분석과 연결될 수 있다.

20. <보기>는 플로리다와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정답: ⑤

출제 의도: <보기>에 제시된 플로리다의 입장과 (가) 지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나) 글쓴이의 비판적 관점과 연결하여 빈칸 ㉠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결론을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플로리다의 이론적 주장(객관적 진실성)과 (나) 글쓴이가 주목하는 현실 정보 생태계 및 인간의 정보 수용 행태 사이의 간극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항 해설:

정답 해설 ⑤: <보기>에서 플로리다는 정보의 객관적 진실성을 강조하며, 이것이 지식 발전의 토대라고 말한다. (가)에서도 플로리다는 정보의 진실성을 강조한다. (나)의 글쓴이는 2, 3문단에서 플로리다의 진리 중심적 정보관이 현실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짓 정보, 오정보, 탈진실적 서사 등의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정보적 존재자인 인간이 플로리다의 이상처럼 항상 진실 정보를 기반으로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현

실에서는 오히려 비진리적 정보에 쉽게 현혹되어 판단 오류를 보이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나) 글쓴이의 입장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이는 플로리다의 규범적 이상과 현실 인간의 정보 처리 행태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는 것으로, (나) 글쓴이의 전반적인 논조와 부합한다.

오답 해설:

- ① (나) 글쓴이의 핵심은 비진리적 데이터가 '지식처럼 기능'한다는 것보다, 플로리다의 '정보' 정의가 이러한 현상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또한, 이 선지는 플로리다의 '정보'와 '지식' 개념을 혼용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 ② (나) 글쓴이의 주된 비판은 추상화 수준 자체나 진실성의 중요도 변화가 아니라, 진실성 조건의 엄격함이 현실의 다양한 정보 현상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모든 분석 수준에서 동일한 규범적 무게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글쓴이의 핵심 비판과 거리가 있다.
- ③ (나) 글쓴이의 핵심 비판은 단계 구분의 모호성이나 순환성이 아니라, 각 단계, 특히 '정보' 단계의 '진실성' 조건이 현실 설명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역동적으로 구성된다'는 표현은 글쓴이의 비판 논점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 ④ (나) 글쓴이가 비진리적 정보의 '비윤리적 결속 강화' 측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플로리다 이론을 비판하지는 않았다. 그의 비판은 주로 정보 정의의 인식론적, 설명력의 한계에 초점을 맞춘다.

평가원 스타일 해설지 - 지식에 대한 토대론 (최종본)]

2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③

출제 의도: 글 (가)와 (나)의 중심 내용과 논지 전개 방식, 그리고 두 글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가장 포괄적이고 적절하게 요약한 설명을 선택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각 글의 핵심 주제와 세부 논증 구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항 해설:

정답 해설 ③: (가)는 정당화의 무한 후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대론의 기본 아이디어(1문단)와 그 구체적인 형태인 고전적 토대론의 핵심 주장 및 특징(2문단)을 제시하고, 그 이론이 지닌 매력과 함께 심각한 한계점(3문단)을 지적하며 마무리한다. (나)는 이러한 고전적 토대론의 한계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한 최소 토대론의 핵심 주장과 특징(1, 2문단)을 설명하고, 최소 토대론 역시 새롭게 직면하게 된 인식론적 쟁점들과 비판(3문단)을 제시하며 토대론 논의의 현재성을 보여준다. 따

라서 (가)가 고전적 형태를, (나)가 그 한계에 대한 최소 토대론의 대응과 남은 쟁점을 제시한다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나)는 고전적 토대론의 한계 극복을 위한 '새로운 시도'(최소 토대론)와 '남은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맞지만, (가)가 단지 '기본 구상'만을 제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는 고전적 토대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까지 다룬다.
- ② (나)는 토대론 자체를 비판하기보다는, 고전적 토대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최소 토대론을 제시한 후, 최소 토대론이 직면한 문제들을 논한다. 즉, 토대론의 틀 내에서의 발전을 모색한다.
- ④ (가)는 지식 토대의 필연성을 역설하지만, (나)가 고전적 토대론의 엄격성이 회의주의를 '강화한다'고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그 엄격성으로 인해 지식의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를 지적한다.
- ⑤ (가)와 (나) 모두 토대론적 관점에서 지식의 정당화 가능성을 긍정하는 것은 맞으나, (나)의 후반부는 최소 토대론에 대한 비판과 남은 쟁점을 다루므로 '긍정'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감각 경험과 이성적 사유의 '상호 보완적 기능'을 두 글 모두가 핵심적으로 역설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2. (가)에서 알 수 있는 고전적 토대론자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출제 의도: 글 (가)에 기술된 고전적 토대론의 핵심 주장과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시된 진술 중 고전적 토대론자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식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특히, 고전적 토대론의 '엄격성'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항 해설:

정답 해설 ②: (가)의 2문단에서 고전적 토대론은 기초 믿음의 조건으로 "오류 불가능성, 의심 불가능성, 또는 교정 불가능성과 같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였다"고 명시한다. (가)의 3문단에서는 이러한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기초 믿음의 범위가 "극히 협소하여...그 토대가 너무나 빈약하다"는 비판을 받는다고 하였다. 고전적 토대론자는 지식의 확실성을 위해 이 엄격한 기준을 고수하려 하지만, 그 기준 자체를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기준 완화는 (나)에서 논의될 최소 토대론의 특징이다. 따라서 이 진술은 고전적 토대론자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1문단에서 토대론은 정당화의 무한 후퇴를 차단하기 위해 자기 정초적 믿음, 즉 기초 믿음을 설정한다고 하였고, 2문단에서 고전적 토대론은 이 기초 믿음의 절대적 확실성을 강조하므로 적절하다.
- ③ (가)의 2문단에서 고전적 토대론은 파생 믿음이 "확실한 기초로부터 주로 연역 논증이나 매우 강력한 귀납 논증을 통해 도출되어야 그 정당성이 보장된다"고 보았으므로 적절하다.
- ④ (가)의 2문단에서 고전적 토대론이 기초 믿음에 엄격한 기준을 설정한 이유가 "회의주의의 공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식의 절대적 확실성을 보장하려는 철학적 열망" 때문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의 1문단에서 토대론은 ㉠(위계적 건축물)과 같은 이층적 구조를 통해 정당화 문제를 해결하려 하며, 2문단과 3문단에서 고전적 토대론은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 체계를 구축하려 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3. (가)에 따라 ‘기초 믿음’과 ‘파생 믿음’의 관계 및 특징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출제 의도: 글 (가)에서 설명된 토대론의 핵심 개념인 ‘기초 믿음’과 ‘파생 믿음’의 정의, 특징, 그리고 그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나 일반적 진술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특히 두 믿음 간의 정당화 관계 및 각 믿음의 인식적 지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문항 해설:

정답 해설 ④: (가)의 2문단에 따르면, 기초 믿음은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정당화되는 믿음"이며, 고전적 토대론은 기초 믿음의 후보로 "직접적 감각 경험에 대한 믿음"이나 "내성적 성찰을 통해 얻어지는 내용" 등을 언급한다. '나는 지금 강한 슬픔을 느낀다'는 내성 보고는 이러한 기초 믿음의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나를 슬프게 한 특정 외부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은 파생 믿음의 형성 과정이며, 이 파생 믿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추론 과정의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단순히 기초 믿음으로부터 도출되었다고 해서 그 파생 믿음이 항상 정당화 요건을 충족하며 '단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실제로 발생했다'는 외부 세계에 대한 주장은 오류 가능성을 내포하며, 이는 고전적 토대론이 추구하는 엄밀한 추론 관계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진술은 기초 믿음과 파생 믿음 간의 정당화 관계를 부적절하게 단정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내 앞에 붉은 것이 보인다'는 직접적 지각 경험은 기초 믿음이 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것은 잘 익은 사과이다'라는 추가적인 판단과 추론이 개입된 믿음은 파생 믿음으로 볼 수 있다.

② 분석 명제는 그 자체의 의미로 인해 참이 되는 명제로, 고전적 토대론에서 이성적 직관이나 자명성에 의해 정당화되는 기초 믿음의 예로 간주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한 논리적 귀결은 파생 믿음이다.

③ (가)의 2문단에서 고전적 토대론은 기초 믿음의 절대적 확실성을 강조하고, 파생 믿음은 이로부터 엄밀한 추론을 통해 정당화된다고 본다. 이는 전체 지식 체계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다.

⑤ (가)의 1, 2문단에 따르면, 기초 믿음은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고 그 자체로 정당화되는 인식적 특권을 지니며, 파생 믿음은 이러한 기초 믿음과의 정당화 관계를 통해서만 그 지위를 획득한다.

24. (나)의 논지에 비추어 볼 때, (가)의 ㉠이 제시하는 지식 구조와 (나)의 ㉡이 언급하는 인식론적 문제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출제 의도: 글 (가)의 핵심 개념(㉠ 위계적 건축물)과 (나)의 핵심 논점(㉡ 인식적 정당화의 토대론적 설명에 대한 문제 제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나)의 글쓴이의 전반적인 논지(최소 토대론의 등장 배경, 특징, 한계 및 비판)에 비추어 각 진술의 타당성을 심층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여러 문단에 걸친 정보의 통합적 이해와 비판적 사고를 요구한다.

문항 해설:

정답 해설 ①: (나)의 1, 2문단에서 최소 토대론은 고전적 토대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초 믿음의 정당성 요건을 완화하고 그 범위를 확장하며, 정당성의 다원적 근거나 잠정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가)의 ㉠(위계적 건축물)이 지향하는 단일하고 확고한 토대 위에 지식 체계를 세우려는 이상은, 이러한 최소 토대론의 변화와 (나)의 ㉡(토대론적 설명에 대한 문제 제기)을 고려할 때 그 실현의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선지의 후반부, "기초 믿음 정당성의 다원적 근거나 잠정성을 인정하게 되면서 그 이상 실현의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것은 최소 토대론이 ㉠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나)의 필자는 최소 토대론 자체를 ㉠의 이상을 포기한 대안으로 보기보다는, 토대론의 틀 내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즉, '이상의 어려움'보다는 '새로운 문제의 발생' 또는 '토대론적 설명의 근본적 한계'에 더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이 진술은 (나) 필자의 논지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다원적 근거나 잠정성을 인정'하는 것이 ㉠의 이상 실현에 대한 '어려움'으로 직접 귀결된다는 연결은 필자의 의도와 다소 거리가 있다. (나) 필자는 오히려 그러한 인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 문제가 남는다고 본다.

오답 해설:

② (가)의 ㉠이 상정한 정당화의 위계적 안정성은 기초 믿음의 확실성에 크게 의존한다. (나)의 1, 2문단에서 최소 토대론이 이 확실성을 포기함에 따라, (나)의 3문단에서 제기되는 ㉡과 관련된 새로운 정당화 기준(예: 일응의 정당성 근거) 및 인식적 신뢰도 확보 방안이 요구된다는 분석은 타당하다.

③ (나)의 1, 2문단에 따르면 최소 토대론은 (가)의 ㉠ 구조를 유지하며 기초 믿음의 외연을 확장한다. 그러나 (나)의 3문단에서 ㉡과 관련하여 제기된 비판, 즉 기초 믿음의 정당성 확보 과정에서 다른 믿음과의 정합성에 의존한다면 순수한 토대론적 성격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은 (나) 필자의 논지에 부합한다.

④ (가)의 ㉠에서 파생 믿음의 정당화 방식이 (나)의 2문단에서 처럼 최소 토대론에서 다양한 개연적 추론으로 확장됨에 따라, (나)의 3문단에서 ㉡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기초 믿음 자체의 지위 문제뿐 아니라, 그 확장된 추론 규칙들의 인식론적 정당성 문제로까지 확장된다는 분석은 타당하다.

⑤ (가)의 고전적 토대론은 ㉠이라는 구조를 통해 ㉡이 지적하는 정당화의 근본 문제에 대해 절대적 확실성이라는 해답을 추

구했다. 그러나 (가)의 3문단과 (나)의 1문단에서 보듯 그 지나친 엄격성으로 인해, (나)에서 논의되는 최소 토대론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 관련 논쟁(예: 일응의 정당성 근거 문제)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은 타당하다.

25. <보기>는 한 실용주의 철학자와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정답: ㉠

출제 의도: <보기>에 제시된 실용주의 철학자의 정당화에 대한 관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가)의 고전적 토대론의 한계 및 (나)의 최소 토대론이 직면한 문제점들과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나)의 글쓴이가 도달할 법한 가장 논리적이고 심층적인 결론을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여러 텍스트의 정보를 통합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문항 해설:

정답 해설 ㉠: <보기>의 실용주의 철학자는 정당화를 절대적 토대가 아닌 특정 공동체의 실천적 목표와 문제 해결 맥락에서의 잠정적 승인 과정으로 보며, 믿음의 유용성과 효과성을 강조한다. (나)의 글쓴이는 고전적 토대론의 한계(가-3)를 인식하고, 최소 토대론 역시 기초 믿음의 정당성 근거 문제 등 새로운 물음(나-3)에 직면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토대론적 설명이 지닌 여러 인식론적 난점들(예: ㉠과 관련된 논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나)의 글쓴이는 <보기>의 실용주의적 통찰을 수용하여, 정당화의 근원 문제는 결국 지식의 절대적 확실성 확보 여부보다는 특정 탐구 상황에서의 실용적 성공 여부, 즉 <보기>에서 말하는 ‘경험을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미래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안내하는’ 기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심층적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는 토대론 자체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관점의 필요성을 암시하는 (나) 글쓴이의 논조와도 부합한다.

오답 해설:

㉡ ‘정당화 개념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가능성 있는 방향이지만, ㉢는 (나) 글쓴이가 현재의 논의를 통해 도달하는 ‘결론’이므로, 단순한 필요성 제기보다는 더 구체적인 인식론적 상황 판단이 들어가야 한다.

㉣ 토대론이 추구하는 인식론적 특권이 이상이라는 점은 <보기>와 부합하나, ‘지식의 가치는 그것이 산출하는 실천적 결과와 분리하여 온전히 평가될 수 없다’는 주장은 <보기>의 내용을 다소 넘어서는 강한 주장이며, (나) 글쓴이가 토대론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 최소 토대론의 ‘일응의 정당성’이 결국 정합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에 의해 ‘사후적으로 보장된다’는 주장은, (나) 글쓴이가 제기하는 ‘정합성에 암묵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토대론적 설명의 취지가 약화된다’는 비판과 연결될 수는 있으나, 이것이 <보기>와 종합하여 도출할 수 있는 유일하거나 가장 핵심적인 결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용주의는 정합성 외에 실천적 유용성을 더 강조한다.

㉥ 토대의 설정이 필연적이라고 보는 것은 토대론적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는 것이며, <보기>의 실용주의자는 토대 자체

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나) 글쓴이가 토대의 ‘상대화’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는 불분명하다.